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14.(금) 6:00 < 4.14.(금) 석간 > 배포 2023. 4. 13.(목)

4월, 시멘트 생산량 상승 추세

- 산업부, 업체에 시멘트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력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4.(금) 오전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시멘트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멘트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석하였다.

4월 들어 첫째주 주간 시멘트 생산량은 97만톤으로 3월 마지막 주 대비 4.7%(4만톤) 증가하였고, 가동 중인 생산설비(소성로)도 24기(3월 말 기준)에서 28기로 늘어났다. 출하량은 5.2%(5만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중에 내린 비로 인해 건설현장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주간 출하량이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시멘트 생산량 증가를 위한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업체는 당장 보수가 필요한 생산설비를 제외한 물량은 보수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간혹 발생하는 돌발보수에 대해서도 수리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출물량 중 불가피한 물량은 제외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물량에 대해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다. 수출과 관련 있는 업체에서는 일부 물량에 대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봄철 성수기 시멘트 수급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멘트 수급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 '23. 4. 14.(금), 10:00 ~

ㅇ (장소) 한국시멘트협회(강남 소재)

ㅇ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
쌍용 C&E 등 시멘트 생산업체(7개사), 한국시멘트 협회 등

ㅇ (내용) 시멘트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오용환 (044-203-46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